



# 부활 제6주일(5월 14일) 성령을 약속하시다(요한 14,15-21)



## 진리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14,17)

주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현존으로 이끄시어 나날의 삶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5. 25.)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5-21)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하느님이시지만, 또 하느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약한 제자들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과 함께라면 안되는 것이 없고 또 못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변화되고 싶은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요한 14,21)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려 노력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을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는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시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는 부친을 좇아 군인이 되려고도 했습니다. 병약하고 시인적 기질이 풍부하였던 청년시절 조각가 로댕(Rodin)의 비서로 일하는 동안 예술의 진수(眞髓)를 접하게 됨으로써 대시인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가을날 자신을 찾아온 이집트 여자친구를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려 패혈증으로 생애를 마친 릴케는 깊은 종교적인 내적 묵상을 시(詩) 속에 접합시켜 서구시의 정점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날’이란 시는 그런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해시계 위에다 당신의 그림자를 엎어놓으십시오/ 들판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에게 결실을 명하십시오/ 열매 위에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단맛이/ 짙

은 포도송이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그리하여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고독한 가을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마지막 과일의 단맛을 완성시켜달라는 릴케의 시적 감수성은 첫마디에서부터 번득이고 있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이 시의 첫 구절은 바로 성경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빌려온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기다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완성과 함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차례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한 릴케의 시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8번 “만왕의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